

# 동구, 퇴근시간 이후 업무지시 금지

### 공무원 복무조례안 상임위 통과 12가지 조직문화 개선안 실천

광주시 동구와 동구의회가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공무원 퇴근 시간 이후 상급자의 업무 지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12가지 조직문화 개선안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재식(나 선거구) 의원은 최근 발의한 '광주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긴급상황 등 예외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조례 제14조 '휴식권 보장' 조항은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상급자는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나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했다.

다만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민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받은 업무 관련 연락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동구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구는 지난해 10월 조직문화 개선 가이드라인인 '동행약속 12계명'을 선정하고 부서별로 이를 실천하는 '챌린지'를 실시했다.

12계명은 동구 전직원이 참여하는 원탁 토론회를 열고 혁신의제 발굴단을 운영하는 등 과정을 거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조직문화를 골라 선정했다.

각 계명은 '칭찬은 기분 좋게', '서로를 존중하게', '지시는 정당하게', '식사는 부담없게', '의견은 간소하게', '평가는 공정하게', '근무는 유연하게', '퇴근은 당당하게', '여가는 자유롭게', '업무는 명확하게', '보고는 간결하게', '회의는 똑똑하게' 등으로 구성됐다.

동구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계명에 대한 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퇴근은 당당하게' 계명이 잘 지켜지고 있다(긍정적)고 응답한 비율은 상반기 78%에서 하반기 80.6%로 올랐다. '여가는 자유롭게' 계명에 대한 긍정적 반응 비율은 66.3%에서 70.8%로, '식사는 부담없게' 계명은 68.2%에서 77.4%로 긍정 비율이 늘었다.

비교적 긍정 응답률이 낮은 '평가는 공정하게'(상반기 33.5%→하반기 38.8%), '업무는 명확하게'(41.5%→46.6%), '칭찬은 기분 좋게'(39.8%→47.3%) 등 계명도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오는 17일 행정안전부 '2024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이같은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식 의원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때문에 공무원들이 긴급하지 않은 일로도 밤낮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서 건전한 근무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은 "자치구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받을 만큼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산구 서울사무소 인사채용 '깜깜이' 지적

### 김은정 광산구의원, 불투명한 채용·불법주정차 문제 개선 촉구



광주시 광산구 서울사무소 인사채용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광주시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진보당 김은정(첨단1·2동·사진) 광산구의원이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의 불투명한 채용·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산구가 올해 8월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5급 상당(시간선택제 가급)의 '연락소장' 직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관련 자치법규 어디에도 '서울사무소'는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서울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채용 절차는 이행했는지 세심히 따져 묻고, 연락소장의 주간 활동 보고 내용과 실제 활동 기록이 불일치 하는 등 근무 관리가 미비한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광산구가 2022년 9월, 2024년 5월 정무특별보좌관과 대외특별보좌관을 신설했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해 놓고 정무특별보좌관은 올해 6월까지도 공석이었다"면서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관련해서는 소통비서관 직위에 자격요건이 갖추지 못한 측근의 인사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광산구의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정책 한계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광산구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현재 160대의 CCTV를 설치하고 평균 8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최근 4년 새 민원 건수는 4배, 단속 건수는 2배 넘게 증가했다"며 "지자체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영하는데, 광산구는 징수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72억 원을 징수한 것은 주차장 조성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CCTV는 한번 설치하면 철거가 어렵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불법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의 신뢰를 저하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북구, 13일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성과보고회

광주시 북구가 올해 4차산업에서 성과를 보인 지역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13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6층 회의실에서 '2024년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성과보고회'가 열린다.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는 4차산업 분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윈스톱으로 지원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북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과학 기술 육성정책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78개 참여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북구는 올해 'AI 기반 바이오 의약 소재 플랫폼 구축', 'AI 활용 포트폴리오 예측·점검 시스템 개발' 등 3건의 융합프로젝트 기획 연구개발과제 발굴·지원과 'IoT 기반 전력 절감 장치 특허출원', '초소

형 인공위성 사출장치 제작', '실시간 다국적 언어 변환 모델 마케팅' 등 9건의 융합프로젝트 사업화를 지원했다. 이에 올해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성과보고회를 마련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성과보고회에는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다.

보고회에서는 운영성과 총괄 보고, 융합프로젝트 사업화 지원과제 우수사례 발표, 간담회 등의 순서로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15분까지 진행된다. 또 행사장 곳곳에는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사업이해를 돕고자 참여기업 10개 사의 융합프로젝트 지원과제 우수 성과물도 전시될 예정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한강 '소년이 온다'를 읽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 인문학당에서 지난 10일 열린 시민낭독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낭독하고 책을 들어보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 서구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집중 지원

### 치평동·금호동·동천동 등 4곳 359개 점포... 지역 상권 활성화

광주시 서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내 상권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전남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서구는 '치평동 시청음식문화거리', '치평동 해광한신상가변영회', '금호동 화개상인회', '동천동상인회' 등 총 4개 구역 359개 점포를 골목형상

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1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이번에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상점가 대상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는다. 서구는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구는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는 앞으로도 20여 개 추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목표로 상권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촌, 금호, 삼촌, 내방, 동천, 화정2, 풍암동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 자료를 활용해 상인회 구성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문성경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골목상권이 서구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빛결'·'양림문화센터' 전시작가 모집

광주시 남구가 지역민들에게 예술 작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빛고을공예창작촌 빛결'과 '양림문화센터'에서 작품을 전시할 작가를 각각 오는 14일과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전시작가 모집은 지역작가들의 창작 활동 증진과 광주시민들에게 다양한 작품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빛결은 빛고을공예창작촌 내에 있는 143㎡ 크기의 전시 공간이다. 선정 작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무료로 작품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평면, 입체, 복합 등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단체로 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

인·단체는 우대한다. 17팀을 모집한다.

전시 희망 작가는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를 빛고을공예창작촌 사무실,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bit937@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양림문화센터에서는 8팀의 작가가 전시가 가능하며 지하 1층에 있는 64.7㎡와 29.2㎡ 크기의 2개 전시실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평면과 입체, 복합, 체험 프로그램 등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단체와 문화예술 보급·대중화를 위한 작품 전시전 계획을 하는 개인·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